

KWC 2019 국가별 수상 와인들

# 그리스, 오스트리아, 독일, 남아공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코리아와인챌린지(이하 KWC) 2019에서 수상한 와인들을 매달 한 국가별로 살펴보았다. 이달에는 그 외 주요 참여 국가들을 묶어 보았다. 출품한 와인 중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으나 이들 국가의 와인들이 있어 KWC는 한결 다양해지고 풍성해졌다. 특히 그리스는 최근 몇 년간 KWC 참여가 두드러졌던 국가다. 덕분에 와인 생산국으로는 아득하고 생소했던 그리스에서 이토록 뛰어난 퀄리티와 특별한 캐릭터를 담은 와인을 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세계적 수준의 특색 있는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는 두 국가로 그 기량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은 가성비 좋은 와인들로 많이 소개되지만, 그 이상의 잠재력을 가진 와인생산국이다. 앞으로의 발견이 더 기대되는 네 나라를 KWC 2019 수상 와인과 함께 소개한다. 글 강은영, 조은지 사진 Austrian Wine Marketing Board, Wikipedia, Pixabay



## KWC 수상 와인들을 통해 보는 남아공 **South Africa**

아프리카 최남단에 자리 잡은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가장 잘 알려진 와인생산국이다. 와인산지는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해안가 지역, 웨스턴 케이프(Western Cape) 일대에 몰려 있다. 여름철은 극지에서 올라오는 벵겔라(Benguela Current)의 찬 기류가 더위를 식혀주고, 겨울은 비교적 온난한 편이다. 남아공에서 잘 알려진 와인명산지는 해안지방(Coastal Region)에 속하는 스텔렌보쉬(Stellenbosch), 팔(Paarl), 콘스탄샤(Constantia), 프란스후크(Franschhoek) 등이 있다. 남아공에서 와인 양조의 역사는 1654년부터 시작됐다. 라인 계열의 포도묘목을 네덜란드에서 옮겨와 케이프타운 남쪽 희망봉에 식재한 것이 효시다. 1679년에는 당시 희망봉의 주지사가 그루트 콘스탄샤(Groot Constantia)에 처음 포도밭을 일구었다.

콘스탄샤는 웨스턴 케이프의 주도 케이프타운의 중심부에서 15km 떨어진 지역이다. 이곳에서 뭉스까 블랑 아 뻬띠 그랑(Muscats Blanc à Petits Grains)으로 만든 스위트 와인은 18세기부터 유럽 시장으로 판매될 만큼 유명했다. 하지만 19세기 필록세라로 모든 포도밭이 황폐화되고 생산이 중단되었다가 1900년대 후반 생산이 다시 재개되었다. 프란스후크 역시 남아공 와인 역사에서 주요한 곳으로, 수준 높은 부띠끄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이다. 콘스탄샤보다는 좀 더 내륙 쪽에 위치하지만 여전히 해안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이곳에서는 쉬라즈나 까베르네 소비농 등으로 질 좋은 레드 와인을 선보이며, 샤르도네와 피노 누아를 블렌드해서 전통 방식으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도 생산한다.

### **Boschendal** 보헨달

1685년, 프란스후크 지역에 설립된 유서 깊은 와이너리다. 케이프타운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시몬스버그(Simonsberg)와 드라켄슈타인(Drakenstein)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포도밭에 '나무와 계곡이란 의미의 보헨달로 이름을 붙였다. 2,250ha가 넘는 포도밭은 낮은 지대부터 해발고도 350m에 이르는 지점까지 펼쳐져 있고 다양한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질의 포도를 재배하기에 이상적이다. 현재 보헨달은 레드, 화이트, 로제, 스파클링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수입사 BK트레이딩

#### 수상 와인리스트

- Silver Boschendal 1685 Cabernet Sauvignon
- Silver Boschendal Nicolas

### **ST Leger Wines (PTY) LTD** 생 레저 와인즈

1890년 설립된 생 레저 와인즈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콘스탄샤 계곡(Constantia Valley) 인근에 위치한 부띠끄 와이너리다. 역사적으로 콘스탄샤는 스위트 와인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이들 역시 뭉스까 블랑 아 뻬띠 그랑으로 스위트 와인을 생산한다. 전형적인 부르고뉴 스타일의 샤르도네와 보르도 블렌드를 비롯한 다양한 와인도 선보인다. 와인 레이블에는 호주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Manifesto Designs)와 콜라보로 탄생한 서커스 이미지를 사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수입사 미수입

#### 수상 와인리스트

- Silver ST Leger Chardonnay







## KWC 수상 와인들을 통해 보는 그리스 **Greece**

가장 오래 와인 역사를 꽃피워 온 그리스는 그 오랫동안 외부에는 미지의 산지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최근 적극적으로 수출 시장을 개척함에 따라 주목해야 할 와인 산지로 부상했다. 그리스의 와인 산지는 크게 북부지역, 중부지역, 펠로폰네소스와 이오니아 도서 지역, 에게 해 도서 지역, 크레타 섬 지역으로 나뉜다. 와인 품계는 프랑스의 AOC에 해당하는 PDO(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와 그보다 아래등급인 PGI(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가 있다.

KWC 2019 수상 와인들을 따라 먼저 북부 마케도니아 지방을 살펴보자. 마케도니아 중앙의 테살로니키(Thessaloniki)에는 에파노미 PGI가 있다. 포도밭들은 대개 테르마이코스 만의 동부에 위치해 지중해성 기후를 띤다. 에파노미는 그리스에서 가장 높고 평가받는 PGI 중 하나가 됐다. PGI는 PDO 보다 규제가 느슨한 편이기 때문에 아씨르티코(Assyrtiko), 말라구지아(Malagousia), 림니오(Limnio), 시노마브로 등의 토착품종 외에도, 비오니에,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시라 등 국제품종으로도 와인을 생산한다. 또 다른 PGI 지

역인 판게온(Pangeon)은 마케도니아 지방 동편 카발라(Kavala) 지역 안에 있다. 근래 재배되는 포도나 와인 스타일에 변화가 생기면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포도밭들은 대개 완만한 지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대체로 지중해성 기후를 띠지만,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 자리 잡은 곳에서는 대륙성 기후도 나타난다. 아씨르티코, 로디티스(Roditis), 말라구지아, 모스켓, 아기오르기티코(Agiorgitiko), 림니오 등 그리스 토착품종을 비롯, 다양한 국제품종이 재배된다.

그리스 본토 최남단에는 중요한 산지 펠로폰네소스가 있다. 해안과 산의 영향으로 기후는 지리적 위치에 비해 서늘한 편이다. 화이트 와인 생산의 비율이 높은 곳이지만 그리스 최대의 단일 레드 와인 아빨라시옹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바로 네메아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그리스 대표 레드 중 중 하나인 아기오르기티코로 와인을 빚는다. 네메아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헤라클라스와 인연이 있는 곳으로, 예부터 네메아의 와인에는 '헤라클라스의 피'라는 별명이 전해져 내려왔다. 펠로폰네소스 반도 중앙에는 아르카디아(Arcadia) 주가 있다. 아르카디아 주의 포도

밭들은 대부분 만타니아 고원 지역에 펼쳐져 있는데, 만타니아는 1971년 이 지역의 화이트 와인으로 PDO를 얻은 지역이다. 만타니아 PDO 와인은 모스코필레로 품종이 85% 이상 사용되어야 한다.

본토의 서쪽에는 에게 해의 섬들이 흩어져 있다. 그 중 하나가 사모스 섬이다. 화이트 포도 품종인 모스켓은 '모스켓 사모스(Muscat Samos)'로 불린다. 사모스 PDO가 이름을 알리게 된 건 바로 이 모스켓으로 만든 최고급 스위트 와인 덕분이다. 와인은 포티파이드에서 자연 건조로 만든 스위트 와인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만들어진다.

### 📍 Ktima Tselepos 크티마 첼레포스

부르고뉴에서 와인 양조 공부를 하고 돌아온 야니스 첼레포스(Yiannis Tselepos)와 그의 아내 아말리아(Amalia)가 설립한 와이너리다. 아르카디아 주에 자리해 있으며 험준한 산속에 위치한 포도밭은 점토, 자갈로 구성되어 있다. 첼레포스는 아르카디아 PGI 와인 뿐 아니라 모스코필레로 100%로 빚은 만타니아 PDO 와인도 생산한다. 첼레포스는 개성을 담은 와인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선두주자가 되고 있다. 생산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 현재 연 생산량은 45만병에 이른다. 그중 40%를 주로 미국, 독일, 영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수입사 헬레닉 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Gold Tselepos Kokkinomylos Silver Tselepos Blanc de Greece

### 📍 Ktima Driopi 크티마 드리오피

크티마 첼레포스의 야니스 첼레포스는 2003년 펠로폰네소스의 동북쪽, 네메아(Nemea) 지역에 자리한 드리오피 와이너리를 인수했다. '헤라클레스의 피'라고도 불리는 네메아의 대표적인 토착 품종, 아기오르기티코에 집중한 와인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한 것이다. 그는 해발고도 380m 지점에 위치한 8.5ha의 포도밭에서 뛰어난 품질의 아기오르기티코를 재배하며, 숙성 잠재력을 지닌 최고 수준의 와인을 만들고 있다. 수입사 헬레닉 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Nemea Driopi Reserve

### 📍 Ktima Gerovassiliou 크티마 게로바실리우

에파노미 언덕에 위치한 와이너리다. 테살로니키 농업대학을 거쳐 보르도에서 양조 공부를 하고 돌아온 반젤리스 게로바실리우는 1981년 가족 소유의 2.5ha 포도밭을 되살려 게로바실리우 와이너리를 설립했다. 이후 포도밭을 72ha로 확장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이들은 아씨르티코와 말라구지아를 블렌딩한 화이트 와인, 시라와 메를로에 토착 품종 림니오를 블렌딩한 레드 와인을 생산하며 실험적인 스타일의 와인들을 선보이고 있다. 수입사 헬레닉 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Gold Gerovassiliou Sauvignon Fume Gold Gerovassiliou Viognier  
Silver Gerovassiliou Museum

### 📍 Ktima Biblia Chora 크티마 비블리아 호라

비블리아 호라는 1998년 유명 와인메이커 반젤리스 게로바실리우(Vangelis Gerovassiliou)와 바실리스 차크차르리스(Vassilis Tsaktsaris)가 설립한 와이너리다. 판게온 산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들은 최첨단 기술력과 설립자들의 와인메이킹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와인을 생산한다. 현재 57ha의 포도밭에서 그리스의 토착 품종인 아씨르티코, 아기오르기티코, 비디아노를 비롯해 소비뇽 블랑, 샤르도네, 시라, 피노 누아 등을 재배하고 있다. 수입사 헬레닉 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Best Greece Red Biblia Chora Plagios Red Gold Biblia Chora Ovilos Red

### 📍 UWC Samos UWC 사모스

사모스 섬에 위치한 UWC 사모스는 1934년 설립된 그리스의 가장 오래된 와인 협동조합 중 하나다. 오늘날 2,200여의 생산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생산하는 와인 중 70%를 프랑스, 캐나다, 미국, 독일 등에 수출하고 있다. 포도밭에는 모스켓 품종이 98%로 주를 이룬다. 배수가 잘 되고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 덕분에 질 좋은 모스켓을 재배하여 농밀하고 달콤한 와인을 선보이고 있다. 수입사 헬레닉 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Trophy Fortified Samos Nectar Gold Samos Grand Cru





## KWC 수상 와인들을 통해 보는 오스트리아 **Austria**

오스트리아는 중앙유럽의 제일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북위 47~48도 선상. 서늘한 와인 산지로 꼽히는 곳이라 화이트 와인 생산 비중이 좀 더 높다. 와인 생산량으로 따지면 오스트리아는 전 세계 생산량의 1% 남짓에 불과하다. 하지만 고유의 품종으로 만든 차별화된 와인을 선보이며, 양보다는 질로 승부를 하고 있다. 총 포도밭 면적은 약 46,500ha, 대체로 소규모 와인생산자들이 부딪힌 와인을 만든다. 오스트리아의 와인 산지는 모두 동쪽에 몰려있다. 와인 산지는 크게 4곳으로 나뉘는데, 위에서부터 니더외스터라이히(Niederösterreich), 빈(Wien), 부르크엔란트(Burgenland) 그리고 가장 남쪽에 스타이어마르크(Steiermark)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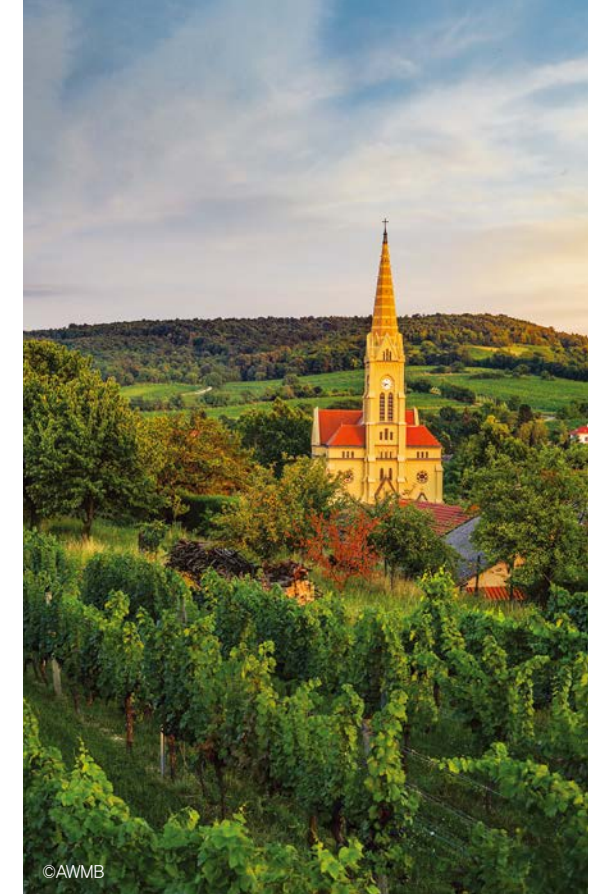
오스트리아에서 퀄리티 와인을 빚는데 허용되는 화이트 품종은 총 26가지, 레드 품종은 14가지다. 그 중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얼굴은 그뤼너 벨트리너(Grüner Veltliner), 화이트 품종으로 오스트리아 전체 포도 생산량의 30% 이상(화이트 품종 중에서는 47%)

을 차지한다. 그 외 화이트종으로는 벨쉬리슬링(Welschriesling), 뮐러 투르가우, 바이스부르크너(Weißburgunder), 리슬링, 샤르도네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레드 품종으로는 츠바이겔트(Zweigelt)가 가장 많이 재배된다. 오스트리아 레드 품종 생산량의 42%나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19%의 비중을 보이는 블라우프랑키쉬(Blaufränkisch), 블라우어 포르투기저(Blauer Portugieser), 생 로랑(St. Laurent) 등이 있다.

KWC 2019에서 수상한 오스트리아 와인 중 하나는 테르멘레기온(Thermenregion) 지역의 것이다. 수도 빈 외곽에 펼쳐져 있는 테르멘레기온 지역은 예부터 온천관광지로 유명했던 곳이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과 아들 조셉 2세가 와인 대로를 건설해, 그 길가에 위치한 마을에는 자체적으로 와인을 생산해 판매할 수 있는 음식점인 호이라겐이 들어서 있다. 기후는 여름은 무덥고 가을은 건조해 포도를 재배하기 좋다. 이 지역에서는 화이트 품종으로 지어판들러(Zierfandler)와 로트기플러(Rotgipfler)가 많이 재배되며 두 품종은 종종 블렌드되기도 한다. 레드 품종은 생 로랑, 피노 누아가 지배적으로 좀 더 남쪽 지역의 포도밭에서

재배된다. 태양이 열기가 강한 부르크엔란트(Burgenland)에서는 파워풀한 레드 와인을 만날 수 있다. 헝가리와 국경이 닿아있는 이 지역에서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성격이 공존하는 문화적 특징이 나타난다. 세계적 수준의 귀부와인이 난다는 사실도 그 중 하나다.

부르크엔란트는 4개의 세부지역으로 나뉘어져있다. 첫 번째가 바로 스위트 와인이 생산되는 노이지들러제(Neusiedlersee)다. 유명한 노이지들러 호수가 펼쳐져 있는 곳으로, 호수 주변은 습기와 온화한 기후로 포도에 보트리티스 균을 생성하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스위트 와인이 탄생한다. 노이지들러 호수의 서쪽 지역 노이지들러제 휘겔란트(Neusiedlersee-Hügelland)에서는 복잡 미묘한 화이트 와인과 더불어 풍만한 레드와인을 생산한다. 중앙 부르크엔란트를 뜻하는 미텔부르크엔란트(Mittelburgenland)와 남쪽의 슈트부르크엔란트(Südburgenland)에서는 블라우프랑키쉬(Blaufränkisch)로 훌륭한 레드 와인을 선보인다.



### ● **Johanneshof Reinisch**

요하네스호프 라이니쉬

요하네스호프 라이니쉬는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남쪽 테르멘레기온(Thermenregion)에 자리한 와이너리다. 1923년에 설립되어 4대째 가족경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3형제가 경영을 맡고 있다. 와인 양조 전 과정에 유기농법을 적용하며 레드 와인 60%, 화이트 와인 40% 가량을 생산한다. 요하네스호프 라이니쉬는 오스트리아 토착 품종인 로트기플러 외에도 뛰어난 품질의 피노 누아를 생산하는 와이너리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수입사 LB

수상 와인리스트

**Gold** Johanneshof Reinisch Rotgipfler

### ● **Leo Hillinger 레오 힐링어**

노이지들러 호수 근처에 위치한 레오 힐링어는 오스트리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와이너리 중 하나다. 현 오너 레오 힐링어는 1990년부터 주변의 와이너리와와 합병을 통해 현재의 힐링어 와이너리로 확장해 나갔다. 오래된 전통을 바탕으로 세련된 모던함까지 접목하여 오스트리아 와인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국내 오스트리아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자랑한다. 화이트, 레드, 로제, 스파클링까지 다양한 레인을 국내에 선보이며 오스트리아 와인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Gold** Leo Hillinger Sauvignon Blanc

**Gold** Leo Hillinger Terroir

**Silver** Leo Hillinger Hill 1

**Silver** Leo Hillinger Hillside





자리 잡은 포도밭들에선 질 좋은 와인을 만들어지지만 그만큼 고된 노동이 요구된다. 모젤의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의 생산 비율은 9:1 정도로, 화이트 와인이 절대적이다. 화이트 와인 중 리슬링의 비중이 60%를 웃돈다. 전체 8744ha의 포도밭 면적의 5,446ha가 리슬링으로 덮여 있다. 모젤의 특징으로 경사면의 포도밭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것이 점판암 토양이다. 점판암은 낮 동안의 온기를 흡수해 포도가 익는데 도움을 준다.

라인가우는 모젤만큼이나 잘 알려진 독일의 와인 산지다. 포도 경작 면적은 3,185 ha에 불과하지만, 독일 와인 양조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생산자들이 이곳에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여름은 따뜻하고 겨울에도 극심한 추위는 없다. 타우누스 힐(Taunus Hills)의 숲이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포도밭을 보호하고, 라인 강이 낮 동안의 열기를 간직하기 때문이다. 이곳도 화이트 와인의 비중이 85.6%로 우세하다. 그 중 리슬링이 77% 이상을 차지하며, 그 외 슈페트부르군더(피노 누아)와 소량의 다른 화이트 종이 재배된다.

나헤 강 인근의 나헤 지역은 아주 작은 와인 산지다. 라인과 모젤 계곡 사이 훈스뤼크 산맥(Hunsrück Hills)에 자리하며, 나헤 강둑 인근이나 그 지류 근처에 포도밭들이 펼쳐져 있다.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훈스뤼크 산 덕분에 이곳의 기온은 비교적 온화하다. 일조량도 좋고 강우량은 적어 포도를 재배하기에는 이상적인 기후다. 포도는 리슬링이 가장 많고, 필러 투르가우, 피노 그리, 피노 블랑, 돈 펠더, 스페트부르군더 등이 재배된다.

**Peter Mertes 피터 메르테스**  
1924년 모젤의 작은 마을 민하임(Minheim)에 설립된 독일 최대의 가족경영 와이너리다. 1950년부터 독일 여러 산지에서 와인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 1960년대에는 독일 와인의 중심지이자 고급 와인 생산지인 라인가우(Rheingau)와 나헤(Nahe) 지역을 추가했다. 오늘날 독일 와인의 대표 주자로 독일의 대부분 와인 매장과 레스토랑에서 쉽게 피터 메르테스 와인을 만날 수 있다. 또한 60개 국가로 수출하는 등 국제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수입사 BK트레이딩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Peter Mertes Nachtgold Auslese

**Van Volxem 반 폭셈**  
모젤 자르 지역에 자리한 와이너리다. 1910년에 설립된 VDP(독일 우수 생산자 협회)의 창립 멤버로 독일 와인의 우수성은 물론 모젤 자르 지역의 리슬링 와인에 대한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1999년 현 오너 로만 니보드니찬스키(Roman Niewodniczanski)가 인수한 후에도 19세기 세계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되었던 리슬링 와인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고지도와 교문서를 연구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반 폭셈은 와인가이드 비넘(Vinum)에서 2019 올해의 와인 메이커로 선정되었고 독일 최고의 드라이 리슬링 와인 생산자로 평가받고 있다. 수입사 나루클로벨  
**수상 와인리스트**  
**Best Germany White** Van Volxem Saar Riesling

## KWC 수상 와인들을 통해 보는 독일 Germany

독일은 북위 49~51도에 자리한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와인 생산국이다. 실제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북방한계 선상에 걸려 있다. 지리적으로 어려운 입지, 차가운 날씨, 늦은 철의 서리와 가을철 비 등 와인 생산을 하는데 여러 난관이 있지만, 그럼에도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는 나라로 오랜 세월 이름을 날렸다. 독일을 대표하는 와인은 리슬링이다. 24,049 ha(2019년 기준), 그러니까 독일 포도밭의 1/4에서는 리슬링이 자라고 있다. 19세기 독일 리슬링은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와인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독일은 전 세계 리슬링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독일의 와인 산지는 대부분 강가에 자리하고 있다. 지정된 와인 산지는 13곳. 모젤(Mosel), 라인가우(Rheingau), 라인헤센(Rheinhessen), 나헤(Nahe), 팔츠(Pfalz), 프랑켄(Franken), 바덴(Baden), 뷔르템베르크(Württemberg), 헤시세 베르크슈트라세(Hessische Bergstraße), 아hr(Ahr), 미텔라인(Mittelrhein), 작센(Sachsen) 그리고 잘레-운스트루트(Saale-Unstrut) 지역이다.

모젤은 독일의 대표적인 산지이며, 이 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와인 산지에 속하는 곳이다. 또한 팔츠와 더불어 독일에서 리슬링 생산이 가장 많은 지역이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리슬링 산지라고 소개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다. 이곳의 포도밭들은 굽이굽이 흐르는 모젤 강을 앞에 두고 가파른 산등성이나 그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가파른 경사면에 위태롭게

